

집합물의 FRBR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 RDA,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RDA & KCR4 Cataloging Rules for FRBRizing the Aggregates

이 미 화 (Mi-hwa Lee)**

초 록

본고는 집합물의 FRBR 구현을 위해 집합물 모델링을 바탕으로 RDA,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FRBR과 LRM의 집합물 모델링을 분석하고, 이러한 집합물 모델링에 따라 RDA, KCR4의 집합물 관련 목록규칙을 비교하여, 집합물을 위한 RDA와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객체지향모형으로 서지레코드를 기술하되, 가능한 집합저작과 수록된 개별저작을 모두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집합물인 경우, RDA에서는 집합저작으로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하는 것과 함께 개별저작을 기술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KCR4에서는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기술하되 집합저작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의 경우, RDA와 KCR4 모두 집합물의 표제가 있으면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같이 기술하고, 집합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는 집합저작 보다는 개별저작을 기술하도록 한다. 넷째, 보유 집합물은 필요시 주된 저작의 표현형과 함께 집합저작, 보유 표현형으로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집합물을 위한 RDA,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시하여 집합물의 FRBR 구현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RDA & KCR4 cataloging rules for FRBRizing the aggregates based on aggregates modeling. It is to suggest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RDA & KCR4 cataloging rules of aggregates through analyzing FRBR and LRM aggregates modeling and comparing RDA and KCR4 cataloging rules about aggregates. First, it is to describe the bibliographic records based on object oriented model, and to describe both aggregates works and separate works appropriately. Second, in case of aggregates by one person, family, or corporate body, collective title as aggregates work and separate works in aggregates must be regulated in RDA. In KCR4, collective titles rules should be regulated for aggregate works and separate works should be described. Third, aggregates of works by different persons, families, or corporate bodies should be accessible by aggregates work and separate works, and aggregates of works by different persons, families, or corporate bodies without collective title should be accessible by each of the works in both RDA and KCR4. Fourth, augmentation aggregates could be accessible by main work's expression, the expression of aggregates work, and separate expressions of the augmenta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RBRize the aggregates by suggesting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RDA & KCR4 cataloging rules.

키워드: 집합물, 편집물, 서지관계, 객체지향모형, 집합물 모델링, 목록규칙
Aggregates, Components, FRBR, RDA, Modeling Aggregates, KCR4

* 이 논문은 2017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leemh@kongju.ac.kr)

논문접수일자 : 2018년 2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3월 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7-46,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027>]

1. 서론

하나의 구현형에 하나의 저작 및 표현형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구현형에 다수의 저작 및 표현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즉 여러 저자의 저작이 하나의 단행본에 출판된 경우, 주된 저작과 유명인의 서문이 함께 출판된 자료를 두 개 저작의 표현형으로 보는 경우, 다수의 언어로 작성된 매뉴얼과 같이 하나의 구현형에 다수의 표현형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는 다수의 표현형이 하나의 구현형에 수록된 집합물(aggregates)이며, 집합물을 위한 FRBR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현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표현형과 저작으로 식별되도록 서지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지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하나의 구현형에 다수의 표현형이나 저작이 포함된 집합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Bennett, Laboie and O'Neill(2003)에 따르면 OCLC 전체 서지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집합물이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였고, Žumer and O'Neill(2012)은 OCLC 서지데이터베이스 내에 집합물이 약 20%를 차지한다고 조사하였다. O'Neill, Žumer, and Mixer(2015)는 애매한 자료를 제외한 상태에서도 1,000개의 샘플 중 집합물이 21.2%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집합물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집합물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집합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서지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집합물 관련된 목록규칙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FRBR 보고서에서 집합물에 관한 내용은 3.3 집합물과 구성요소 개체, 5.3.1.1, 5.3.2.1 전체/

부분 관계(저작 및 표현형)에서 간략히 제시하고 있고, 집합물과 관련된 IFLA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집합물 모델링에서는 구체적인 서지기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집합물 서지기술의 애매함과 비일관성은 FRBR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집합물의 FRBR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FRBR 모델과는 다른 집합물을 위한 목록규칙 기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합물의 FRBR 구현을 위해 IFLA에서 제시한 집합물 모델링을 바탕으로 RDA와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안하고자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FRBR, LRM의 집합물 모델링을 조사하고, 이러한 집합물 모델링에 따라 기존 RDA, KCR4의 집합물 목록규칙을 분석한 후, RDA와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집합물 관련 목록규칙 RDA 6.2.2.10.1~6.2.2.10.4, 6.27.1.4, 6.27.1.6, 19.1.2, KCR4 1.1.1.2 9항, 10항을 집합물 모델링과 비교하여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BIBFRAME 모형이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MARC로 구축되고 있어 본고에서 MARC 레코드를 중심으로 객체지향 모형 하에서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합물의 목록규칙 기술방안은 집합물의 FRBR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2. 집합물의 개념

2.1 집합물의 정의

2005년 IFLA FRBR 워크숍과 FRBR Review

Group 회의에서 집합물에 FRBR 모델 적용시 어려움과 비일관성은 FRBR 구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FRBR Review Group은 Working Group on Aggregates을 구성하고, 집합물에 포함되는 컬렉션, 선집, 합집, 보유, 총서, 저널, 갱신자원, 다권 단행본을 모델링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워킹 그룹에서는 집합물에 관한 2가지 서로 다른 정의를 고려하고 평가하였다. 첫째, 집합물을 다수의 표현형을 구현한 구현형으로 보는 O'Neill and Žumer의 제안이고, 둘째, 집합물을 2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가진 전체/부분 관계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Tillett의 주장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합물을 다수의 표현형을 구현한 구현형으로 보고 2011년 이를 FRBR Review Group에 제안하였다(Zumer and O'Neill 2012, 457).

워킹그룹은 집합물도 FRBR 모델과 일관성 있게 정의되고 취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집합물과 관련하여 3가지 원칙을 고려하였다. 첫째, 표현형의 경계는 저작의 지적 혹은 예술적 실체에 통합되지 않는 페이지 레이아웃 등의 물리적 형식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표현형의 경계는 물리적인 형식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표현형의 개정이나 수정이 없다면 다른 표현형과 같이 구현되었더라도 이를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2). 예를 들어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 표현형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출판되든 특정인의 서문과 같이 출판되든 동일한 표현형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동일 표현형이 여러 구현형에 구현된 경우

둘째, 지적 혹은 예술적 실체에 통합되지 않는 삽화, 주기 등의 보유가 표현형에 추가된 경우 이러한 보유는 별도 저작의 별도 표현형으로 간주된다. 2007년 Working Group on the Expression Entity에서 표현형 정의를 수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작이 보유되거나 다른 자료가 추가된 경우 이를 그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으로 받아 들여왔다. 그러나 고전작품의 경우 고전 자체의 표현형은 전혀 변화가 없었으나 노트, 서문, 삽화 등이 추가되면 계속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저작하에 다수의 표현형을 낳아 도서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2007년 개정된 FRBR 보고서에서 그 저작의 지적 혹은 예술적 실체에 통합되지 않은 보유가 추가된 표현형에서 보유는 각각의 별도 저작의 별도의 표현형으로 간주하였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2-3). O'Neill(2002)에 따르면 유명한 고전 Humphry Clinker는 1771년 출판 이래로 계속 재출판되었는데 OCLC WorldCat상에 165개의 서지레코드, 114개의 구현형이 존재하였고, 48개의 표현형이 생성되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니 48개 중 8개는 번역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소설의 내용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도 서

문, 주기, 삽화, 유사 보유가 추가되어 새로운 표현형으로 처리된 것이었다. 표현형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Humphry Clinker의 48개 표현형은 9개로 감소하게 되었다(O'Neill, Žumer, and Mixer 2015, 123).

셋째, 한 구현형에 구현된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이 다른 구현형에 구현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형 개체를 사용한다. 2개의 구현형이 동일한 지적 예술적 내용을 구현한 것이라면 표현형 개체를 통해 이를 상호 연계를 할 수 있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2).

〈그림 1〉과 같이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 표현형이 구현된 구현형과 이후 동일한 영어 표현형에 Amy Herbert의 서문과 주기를 추가하여 발행한 구현형이 있다면 이들은 구현형은 다르지만 표현형은 동일하다. 즉 한 저작의 2개 표현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형이 하나이다. 또한, Amy Herbert의 서문 자체는 보유로 별도 저작의 별도 표현형이 된다. 이를 통해 내용상 변화가 없는 표현형과 노트, 서문, 삽화 등의 보유가 추가된 경우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7년 개정된 FRBR 보고서에는 보유 내용을 추가하여 “삽화, 주기 등의 보유가 저작의 지적 예술적 실현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보유를 별도 저작의 표현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유는 명확히 서지적으로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IFLA Study Group on the FRBR 2009, 20)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FRBR 보고서에서는 표현형 내용에 변화를 준 모든 것은 새로운 표현형으로 보았으나 2007년 개정된 FRBR보고서는 주된 표현형

의 변화가 없는 보유에서 주된 표현형은 새로운 표현형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표현형이며 보유는 별도 저작의 표현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합물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표현형의 정의가 변경된 것이며, 집합물의 FRBR 구현에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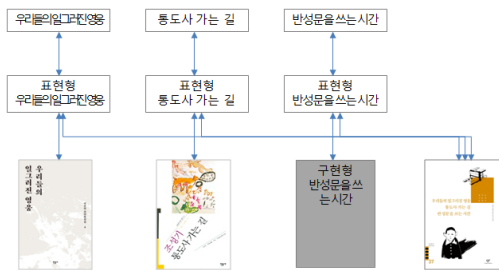
2.2 집합물의 유형

2.2.1 표현형 집합물(Aggregate collections of expr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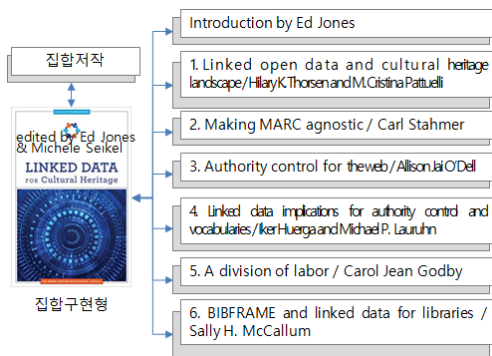
다수의 독립적으로 생성된 표현형이 동일한 구현형에 출판되는 경우이다. 선집, 합집, 단행본 시리즈, 연속간행물, 기타 유사한 자원의 집합이다. 논문의 집합인 저널, 단권으로 같이 출판된 여러 소설, 독립적으로 작성된 장절의 도서, 개별 노래가 수록된 CD, 다양한 합집 저작 등이다. 특징은 개별저작이 특정 저자의 소설집, 특정 예술가의 노래집, 시 합집과 같이 유사한 유형과 장르를 갖는다. 이는 표현형의 무작위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3; Riva, Boeuf, and Žumer 2017, 93). 실제적으로 많은 서지레코드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WorldCat 레코드 500개 샘플 중에서 47개 서지 레코드가 이러한 컬렉션 집합물이었다. 이는 프로시딩내 논문, 시집내 시, 에세이집의 개별 에세이, 단편 소설집 등이었다(Žumer and O'Neill 2012, 461).

〈그림 2〉와 같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개별적으로 출판되었거나 여러 저자의 소설선집의 일부로 출판되었거나 동일한 표현형이 구현형을 달리해 출판된 경우이다. 이 경우 집합저작을 서지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저작을 기술하지 않고 개별저작으로 접근한다. <그림 3>과 같은 경우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독창성을 가지고 각각의 저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서문은 편집자 Ed Jones가 작성한 것으로 편집자의 지적 창작이 명확히 드러나 집합저작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6개의 장, 1개의 서문, 집합저작 총 8개 저작이 기술가능한 집합물이다.



<그림 2> 명확한 집합저작이 없는 표현형 집합물



<그림 3> 명확한 집합저작이 있는 표현형 집합물

2.2.2 보유 집합물(Augmentation aggregates)

보유 집합물은 다수의 종속저작을 보유로 갖는 단일 독립 저작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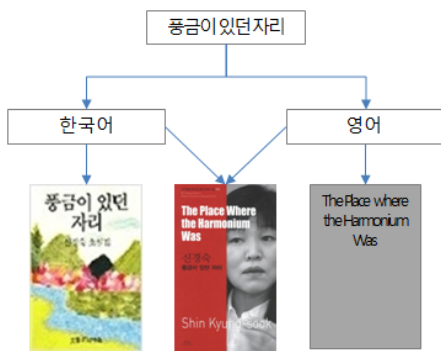
렉션과 다르다. 이는 원본 표현형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저작에 통합되지 않은 서문, 소개, 삽화, 노트 등의 추가 자료로 표현형을 보유한 경우이다. 이러한 보유는 명확히 서지적으로 식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3; Riva, Boeuf, and Žumer 2017, 93). WorldCat 500개 샘플에서 60개의 서지레코드가 이러한 집합물에 해당하였다. 서문, 주기, 에세이, 주석, 발문, 서지 등의 텍스트가 추가된 자료, 그림, 표, 초상, 사진, 지도 등의 사진자료가 추가된 경우이다. 단, 저작에 통합된 삽화, 표는 보유로 간주하지 않는다(Žumer and O'Neill 2012, 462).

<그림 1>과 같이 영어 표현형이 주된 자료에 서문, 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어 표현형을 보유한 서문은 식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007년 FRBR 보고서 이후 저작의 지적 혹은 예술적 실현에 통합되지 않은 삽화, 주기와 같은 보유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보유 자체는 별도 저작의 표현형으로 간주된다. 이는 표현형과 집합물 정의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기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3 대등표현형 집합물(Aggregates of Parallels)

구현형은 동일 저작의 다수의 대등 표현형을 구현한다. 다국어 매뉴얼과 다국어 공식문서, 다국어 웹페이지 등과 같이 여러 언어로 된 저작의 표현형을 포함하는 하나의 구현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언어를 선택하여 대등한 자료를 접근하도록 하는 웹자원에서도 대등 표현형을 찾을 수 있다. 원어 텍스트와 번역어를 함께 출판한 자료, 언어와 자막어를 선택할 수 있는 영화 DVD

도 해당한다. 도서관 환경에서 대등 표현형은 다른 집합물 보다는 많지 않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4; Riva, Boeuf, and Žumer 2017, 93). 이러한 유형은 WorldCat 샘플에서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이러한 유형이 많지 않거나 혹은 이러한 자원 유형이 도서관 목록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고, 명확한 목록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Žumer and O'Neill 2012, 462). <그림 4>는 동일한 저작의 영어와 한글 표현형이 하나의 구현형에 같이 출판된 것이다.



<그림 4> 대등표현형의 집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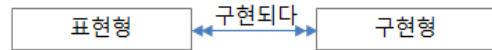
3. 집합물 모델링

3.1 FRBR 집합물 모델링

3.1.1 표현형과 구현형의 다대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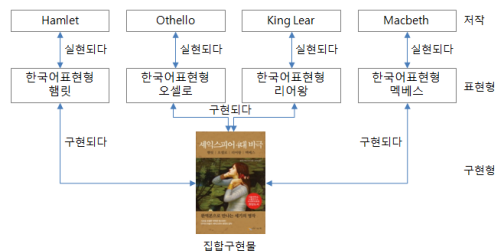
FRBR에서 표현형과 구현형 간의 다대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제1그룹 개체간에 유일한 다대다 관계이다(<그림 5> 참조). 이는 하나의 표현형이 다수의 구현형과 연계될 수 있

으며 하나의 구현형이 다수의 표현형에 대응될 수도 있다(IFLA Study Group on the FRBR 2009, 13-14)는 의미이다.



<그림 5> 표현형과 구현형간의 다대다 관계
※ 출처: IFLA Study Group on the FRBR(2009)

다대다 관계는 다수의 표현형이 하나의 구현형에 구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합물 모델링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셰익스피어의 4개 표현형이 하나의 구현물에 구현된 것이다. 구현형은 하나지만 4개의 표현형이 포함되어 있어 표현형과 구현형은 다대일 관계가 된다.



<그림 6> 다수 저작의 표현형이 수록된 집합물

실질적으로 표현형과 구현형의 다대다관계는 실제 서지 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FRBR 모델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Žumer and O'Neill 2012, 459-460)고 볼 수 있다.

3.1.2 집합물과 구성요소

저작은 구성요소를 가지면서 더 큰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집합될 수 있다. 단권으로 출판된 소설과 같이 하나의 물리적 개체인 구현형은 단일 저작의 단일 표현형을 구현한다. 그러나 다수의 표현형이 하나의 구현형에 같이 출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논문이 하나의 저널에 출판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저작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개별 소설이 저작인지, 논문이 저작인지 혹은 저널이 저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저작을 가장 작은 식별과 자치적 개체로 정의하도록 저작의 정의를 확대하면 이러한 모호성이 감소된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개별 소설과 논문이 저작이 되고 저널은 집합물이 된다. 애매함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은 주어진 자원이 단일한 저작인지 집합물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집합물을 논의할 때 특히 중요하다.

저작은 추상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작의 속성이 구현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속성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저작의 속성만이 저작과 연관되는 한, 구현형을 통해 저작의 일부 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구현형이 저작의 속성을 반영하므로, 구현형의 속성은 저작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공한다. 구현형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저작의 명확성과 자치성의 증거로는 (1) 고유의 식별성을 갖는다 (2) 독립적으로 생성되었다 (3) 완전하고 독립되어 있다 (4) 명확한 지적재산권과 연관된다 (5) 각각 표현형의 구현형이 개별적으로 판매, 출판, 배포되거나 저작의 표현형이 다른 저작의 표현형

과 같이 출판된다. 이러한 기준중 하나에 부합한다면 이는 자치적 저작의 증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쇄자원은 저작과 표제로 식별이 가능하다(Žumer and O'Neill 2012, 459-460).

FRBR 3.3 집합물과 구성요소, 5.3.1.1(저작 수준), 5.3.2.1(표현형 수준)에서 전체/부분 관계¹⁾ 측면의 집합물과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FRBR은 통합단위로 개체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게 집합물과 구성요소 개체를 표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저작 개체는 선집 형식으로 편자나 편찬자에 의한 개개 저작의 집합물, 총서를 만들기 위해 출판사에서 모든 개별 단행본의 집합물로 나타날 수 있다. 저작 개체는 보고서의 한 장, 지도의 일부, 학술지에 수록된 한편의 논문 등과 같이 상위 저작에 속하면서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각기 독립된 구성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FRBR의 목적상 집합물이나 구성요소 수준의 개체는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동일한 용어로 정의되며,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IFLA Study Group on the FRBR 2009, 29-30).

저작 및 표현형 수준에서 전체/부분관계는 종속부분과 독립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부분은 의미에서 상위저작의 맥락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구성요소는 고유한 이름/표제를 갖는다. 반면, 종속부분은 하나의 상위저작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저작의 구성요소로 의미의 상당 부분을 상위저작의 맥락

1) 저작과 표현형의 전체/부분 관계는 집합물의 저작 및 표현형의 내용 측면과 관련되고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전체/부분 관계는 집합물의 형태 측면과 관련되므로 여기서는 저작과 표현형의 전체/부분관계만을 살펴보았다.

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이름/표제를 갖지 않아 대개 상위저작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식별하기 어렵다. 종속부분, 독립부분 모두 전체를 나타내는 저작은 독립 저작이다.

특히, 종속부분은 분절부분(segmental parts)과 저작 내용의 체계적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분절부분은 별개로 분리된 저작의 구성요소로 그 내용은 전체 저작에서 명확히 식별가능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서문, 장, 섹션, 파트 등이 해당한다. 체계적 부분은 명확한 경계를 갖지 않고 저작의 내용과 뒤섞여 통합된다. 여기에는 텍스트내의 삽화나 영화의 촬영기법으로 이는 전체의 지적 예술적 부분으로 식별될 수 없다.

저작의 독립부분은 그 자체를 식별하고 기술한다. 여기에는 단행본 총서에 수록된 단행본, 학술지나 학술지의 호에 수록된 논문, 여러 편으로 구성된 저작에서 독립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저작의 종속부분을 서지레코드에서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문 저자가 아닌 다른 유명한 사람이 서문을 쓴 경우, 이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기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정의상 종속부분은 상위저작의 맥락에 있어야 하므로 전통적으로 상위저작을 기술한 레코드에 구성요소의 부출저록을 추가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내용주기를 통해 이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IFLA Study Group on the FRBR 2009, 6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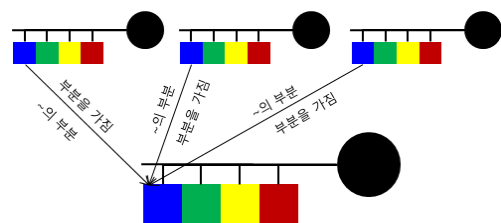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된 것은 별도의 기술을 통해 저작 및 표현형으로 접근가능해야 하지만 종속된 것은 독립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나 유명한 사람이 쓴 것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서지기술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2 Tillett 대 O'Neill and Žumer의 모델링

3.2.1 Tillett의 집합물 모델링

Tillett의 방식은 집합물에 포함된 각각의 것을 개별저작으로 보고 이러한 개별저작들의 저작을 집합물로 보는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재귀성(recursive)은 여러 저작을 아우르는 더 큰 저작 개념으로 한 저작은 여러 저작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FRBR의 전체/부분 관계와 관련된다. 전체/부분 관계에서 한 저작은 여러 저작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는 전체에 다수의 부분이 관련된 일대다 관계이다(Tillett 2009, 2). 집합저작은 표현형으로 실현되고 표현형은 구현형으로 구현되지만 이는 집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하다. 저작은 재귀되고, 개별저작들의 저작인 집합저작이 허용된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09).



<그림 7> 여러 저작의 저작

※ 출처: Tillett(2011)

집합물은 저작 및 표현형 수준의 전체/부분 관계에서 독립부분과 종속부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표 1>과 같이 독립부분은 상위 저작에 의존적이지 않고, 이러한 독립적인 구성요소는 명확한 이름/표제를 각각 가지고 있어 독

립적으로 식별되고 기술되는 경향이 많다. 종속부분은 상위저작의 맥락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상위저작에 의존적이며, 명확한 이름/표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위저작을 참조하지 않고는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명한 저자가 서문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속부분은 서지레코드 상에서 별도로 식별되거나 기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O'Neill and Žumer가 사용한 '보유'라는 용어보다 종속부분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서문, 삽화, 주기 등이 FRBR에서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이다. 저작이 그림, 서문 등으로 보유되고, 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작과 통합되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 FRBR 측면에서 그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된다. 주된 저작을 보유하는 구성요소가 독립적인 경우, 집합물은 그 자체의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갖는 다른 저작이 된다. 이 집합저작은 독립된 구성요소 저작과 전체/부분 관계를 갖게 된다(Tillett 2009).

살펴본 바와 같이 틸렛의 경우 집합물을 여러 저작들의 저작으로 보았고 전체/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들의 저작과 개별저작은 상호 관계

를 갖는다. 독립저작들의 저작 및 주된 저작과 종속 저작들의 저작을 모두 저작들의 저작으로 보고, 저작들의 저작과 각각의 개별저작은 전체/부분 관계로 연계된다. 저작들의 결합이 편집자의 노력이 담보된 것이라면 새로운 저작들의 저작이 되고, 편집자는 저작들의 저작의 생산자가 된다. 이 개념에서는 하나의 저작만 있는 대등 표현형이 집합된 집합물은 저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집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2.2 O'Neill and Žumer(Working Group on Aggregates)의 집합물 모델링

O'Neill and Žumer는 집합물을 복수의 표현형이 구현된 구현형으로 보았다. FRBR 모델에서 표현형과 구현형 간의 다대다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구현형은 다수의 표현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저작은 재귀되지 않고, 표현형은 하나의 저작을 실현하고, 구현형은 집합물이 생성되는 수준에서 다수의 표현형을 구현한다.

〈표 1〉과 같이 표현형의 집합물은 다수의 표현형을 수록한 구현형이다. 집합물이 명확한 지적 혹은 예술적 창작의 노력으로 생성된 것이면,

〈표 1〉 O'Neill and Žumer, Tillett의 집합물 비교

O'Neill and Žumer				Tillett			
기술방법	예시	정의	유형	유형	정의	예시	기술방법
각각 식별되게 기술	논문들 모은 저널, 여러 저작이 한 권에 출판, 독립적으로 작성된 강철의 도서	다수의 독립된 표현형이 동일한 구현형에 출판	표현형 집합물	독립부분	상위저작에 의존적이지 않고, 구성요소는 명확한 이름/표제를 가짐	시리즈의 단행본, 저널내 논문, 다권 저작의 독립적인 지적 구성요소	각각 식별되게 기술
보유는 명확히 서지적으로 식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서문, 소개, 삽화, 노트 등의 보유	원저작에 통합되지 않고 원본 표현형을 변경하지 않는 추가적인 자료로 표현형을 보유	보유 집합물	분절부분	별개로 분리된 저작의 집합	서문, 장, 섹션, 파트 등 → 그 자체의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갖는 다른 저작	서지레코드 상에서 별도로 식별되거나 기술되지 않음 부출이나 내용주기로 표현
[집합물로 간주하지 않음]				저작내용의 체계적 부분	저작의 내용과 통합된 것으로 분리 불가	텍스트내의 삽화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
	원어 텍스트와 번역어를 함께 출판	하나의 저작의 여러 언어로 작성된 다수의 표현형을 구현	대등표현형 집합물			[집합물로 간주하지 않음]	

집합물은 집합저작을 가지지만 그 이외에는 새로운 저작이나 표현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보유는 원본 저작에 통합되지 않은 서문, 삽화, 주기 등과 같이 독립저작의 표현형과 종속저작의 모든 표현형이 수록된 하나의 구현형이다. 편집에서 명확한 지적 예술적 노력이 있다면, 집합저작으로 간주되고, 각각의 보유는 개별저작의 다른 표현형으로 간주된다. 집합저작과 집합저작의 표현형은 집합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 보유는 원저작에 기반하기 때문에 종속저작으로 볼 수 있다. 대등 표현형은 단일 저작의 여러 표현형이 집합된 집합물이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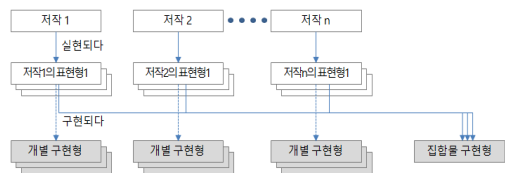
저작과 표현형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출판형식이나 물리적 구현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된다(O'Neill and Žumer 2009). 예를 들어, 기존 표현형이 다른 구현형으로 출판되면서 보유가 추가되어도 이는 같은 표현형이고 보유는 별도 저작의 표현형이 된다. 편집자, 애그리게이터는 집합저작의 창작자이다.

집합물 관련 관점은 저작들의 저작, 표현형의 집합이라는 정의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낸다. 워킹그룹에서 O'Neill and Žumer의 집합물 정의를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O'Neill and Žumer의 정의는 단순하고, 저작과 표현형이 적게 모델화될 수 있지만, Tillett의 정의는 개별저작과 저작들의 저작을 연계하기 위해 전체/부분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집합저작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3.3 LRM의 집합물 모델링

집합물의 모델링의 핵심은 집합저작의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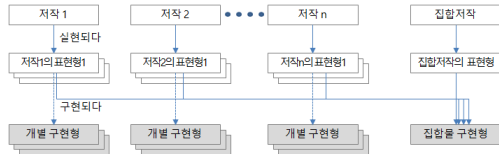
여부와 관련된다. <그림 8>과 같이 1~n개의 저작이 각각의 표현형으로, 표현형은 각각의 구현형으로 구현되고, 집합물 구현형은 다수의 표현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표현형이 하나의 구현형에 구현되며, 집합저작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집합저작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림 8> 기본 집합물 모델

※ 출처: Žumer and O'Neill(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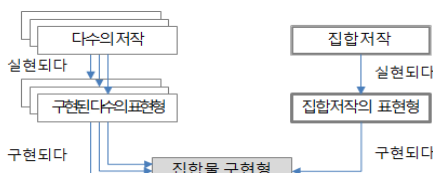
서로 다른 여러 표현형의 구현으로 집합물을 단순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편집자의 창조적 노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 표현형을 모으는 과정 자체는 지적 예술적 노력이므로 저작의 범주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9>와 같이 표현형만이 결합되거나 집합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합물은 표현형 수준에서 생성되고, 표현형을 결합하여 집합물 구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집자는 집합저작을 생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6; O'Neill and Žumer 2009). 그러므로, 집합저작은 표현형을 결합한 지적 노력의 결과로 집합저작 생성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주요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집합저작을 서지적으로 식별하고 기술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게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9〉 집합저작이 있는 집합물 모델

※ 출처: Žumer and O'Neill(2012)

2017년 확정된 FRBR LRM에서도 집합물을 다수의 표현형을 구현한 구현형으로 정의하고 모델링하고 있다. 저작과 표현형은 구현된 출판물 형태나 물리적 구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된다. 표현형은 단독으로 출판되거나, 다른 여러 표현형과 함께 구현형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림 10〉과 같이 집합물 구현형은 집합저작의 표현형도 구현하지만, 집합물 구현형에 포함된 다수의 표현형은 서지적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명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핵심은 집합저작은 언제나 기술될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집합저작이 처음에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추후 기술될 수도 있다. 동시에 서문과 같이 이전에는 기술되지 않은 보유는 수필로 재출판되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인지된다면 기술될 수 있다(Riva, Boeuf, and Žumer 2017, 94).



〈그림 10〉 집합저작의 일반적 모델링

※ 출처: Riva, Boeuf, and Žumer(2017)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물 구현형은 여기에 포

함된 다수의 저작 및 표현형을 구현한 것으로 필요시 집합저작을 언제나 기술하고, 보유도 필요시 기술될 수 있도록 집합물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링을 실제 서지레코드 기술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목록규칙 기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집합물을 위한 목록규칙 기술방안

4.1 집합물 관련 목록규칙의 방향

4.1.1 객체지향모형

집합물의 FRBR 구현은 E-R모형이나 객체지향모형으로 구축할 수 있다. 객체지향모형은 실세계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객체로 보고 모델링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개체 클래스마다 상이한 레코드를 정의하는 객체지향모형으로 레코드를 설계하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즉 다수의 구현형이 동일한 표현형, 저작을 공유한다면 복수의 데이터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표현형 및 저작에 연계될 수 있고, 다수의 표현형 및 저작이 하나의 구현형을 공유한다면 복수의 구현형을 작성하지 않고 하나의 구현형에 연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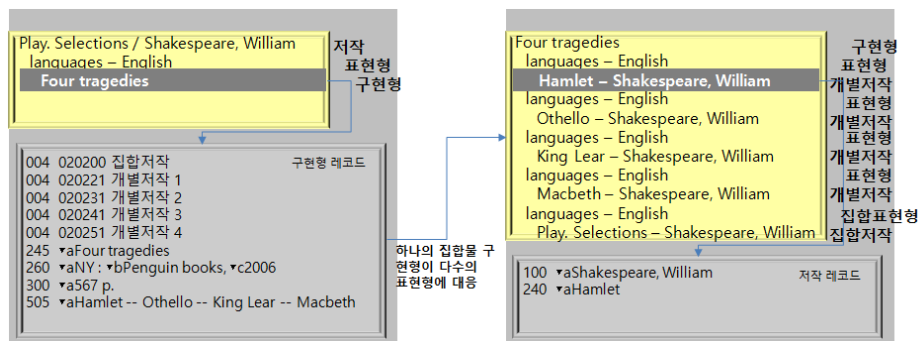
FRBR을 구현한 대표적인 시스템인 VTLS에서는 집합물을 다수의 저작을 포함하는 FRBR 구현형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쥘의 소설 *Beau Geste*, *Mysterious Way*, *Soldiers of Misfortune*이 집합물 구현형 *Obras Selectas*로 출판된 경우, 구체적인 레코드 구성과 시스템 처리 방안으로 집합저작을 인정하고, 객체지향모형으로

레코드를 구성하였다. 집합물 구현형은 4개의 서로 다른 표현형과 링크되며 3개는 구현형에 포함된 각각 저작의 표현형이고 하나는 집합 저작의 표현형이다(Espley and Pillow 2012, 380-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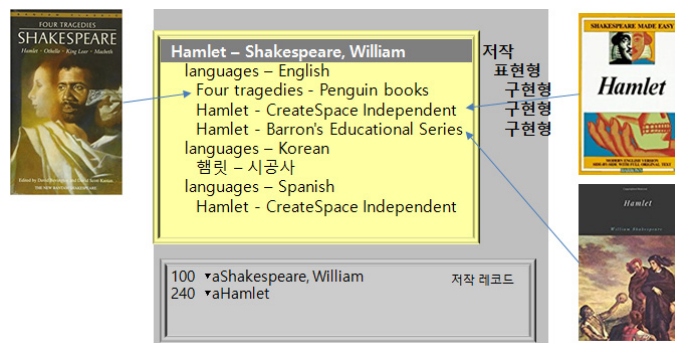
그러므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레코드를 구성하는 객체지향모형을 집합물 구현형에 적용하면 <그림 11>과 같이 집합물 구현형은 하나지만 다수의 표현형이 연계된다. 이러한 객체지향방식으로 서지데이터를 구성하면 집합물 구현형은 필요시 언제나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저작의 표현형, 집합저작의 표현형과도 연계될 수 있다. 예시에서 Four tragedies라는 집

합물 구현형은 Hamlet, Othello, King Lear, Macbeth 4개 개별저작의 표현형, Play. Selections 집합저작의 표현형과 연계된다. 집합저작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레코드를 생성하여 집합저작에 수록된 개별 표현형으로도 집중이 가능하다.

Hamlet이라는 저작을 클릭하면 <그림 12>와 같이 저작 햄릿과 관련된 모든 표현형과 구현형이 제공된다. 원본 햄릿과 동일하지만 다양한 구현형에 구현된 경우 표현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형을 중복기술하지 않고 언어가 영어인 표현형과 연계되고, 다수의 구현형이 연계된다. 이에 따라 집합물 구현형에 포함된 햄릿, 개별적으로 출판된 햄릿을 모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1> 집합물 구현형과 해당하는 개별 표현형 및 저작 대응



<그림 12> 하나의 표현형에 다수의 구현형이 대응

4.1.2 집합저작 기술

집합물 서지기술시 집합저작을 새로운 저작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컨테이너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집합물 모델링에서는 집합저작 및 개별저작이 필요하면 기술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반면, KCR4에서는 종합표제가 있는 것은 종합표제를 집합저작으로 기술할 수 있지만, 종합표제가 없는 집합물은 각각 개별자료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집합저작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어렵다.

집합저작은 도서관에서 제본한 자료, 마케팅의 목적으로 여러 개별저작을 수록한 경우와 같이 컨테이너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평적 서문과 함께 여러 저작이 포함된 집합저작이 생성된 경우도 있다. 이용자는 집합저작과 개별저작간을 구별하지는 못하고, 기존 서지레코드에서 이러한 저작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목록레코드는 기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집합저작을 구성요소인 개별저작과 구분하고, 그 자체적인 저작으로 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또한 집합저작 내에서 개별저작을 식별하면 개별저작의 검색도 향상될 수 있다. 집합저작 내 개별저작의 검색은 일관성이 없는데 일부에서는 개별저작에 대해 부출을 하지 않아 다양한 표제를 갖는 개별저작이 하나의 표제로만 검색되는 문제가 있다. 만일 집합저작의 내용이 구별되면 집합저작은 개별저작과 연계될 수 있다(Gatenby, Thornburg, and Weitz 2015).

OCLC의 집합물을 식별하기 위한 알고리즘 전략을 보면 245 태그에 selection이라는 정보가 포함된 레코드, 245 태그에 세미콜론이 다수인 레코드, 240 태그에 symphonies, plays, concertos 등과 같은 용어가 포함된 레코드, 505에 “/”와 같

은 패턴의 다수 기술, 서브필드 $\cdot t$ 의 다수 기술, 740의 제2지시기호가 “2”인 레코드를 선별하였다. 이는 집합물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서지레코드 상에 많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반면 목록에서 집합물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없다(Thornburg 2014, 59-60)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물을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객체지향모형하에서 집합저작과 개별저작간의 관계, 집합저작과 포함된 개별저작을 모두 식별할 수 있는 목록규칙 기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 RDA 집합물 관련 목록규칙 기술방안

4.2.1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저작의 집합물

편집물의 표제가 알려진 경우 알려진 편집물의 표제를 바탕으로 접근점을 작성하고, 포함된 개별저작의 표현형으로 접근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은 기타 편집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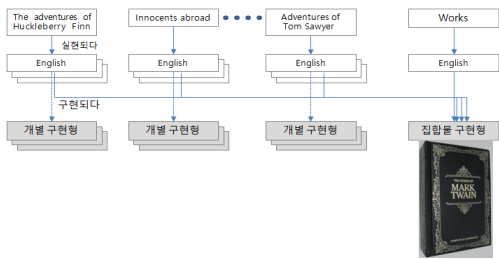
1) 전집 및 단일형식의 전집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집으로 구성된, 또는 그럴 목적을 갖는 저작의 편집물에 대한 우선표제의 경우 전통적인 종합표제인 “Works”를 기록한다. 이는 발행시에 완성된 모든 저작이 전집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한다(RDA 6.2.2.10.1).

하나의 특정 형식으로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집으로 구성된, 또는 그럴 목적을 갖는 저

작의 편집물에 대한 우선표제의 경우 전통적인 종합표제인 Correspondence, Essays, Librettos, Lyrics, Novels, Plays, Poems, Short stories 중에서 하나를 사용한다(RDA 6.2.2.10.2).

“Twain, Mark. Works”와 같이 전집이든 “Shaw, Bernard. Plays”와 같은 단일 형식의 전집이든 집합저작은 인정되지만, 수록된 개별 저작의 접근에 대한 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13>과 같이 마크 트웨인의 전집 “Work of Mark Twain”의 경우 집합저작명 “Twain, Mark. Works”로 우선표제를 작성하여 집합저작을 기술하고, 전집내에 포함된 다수의 개별 저작의 우선표제로도 접근가능해야 한다.



<그림 13> Mark Twain 전집

따라서, 전통적인 종합표제인 집합저작, 집합물인 전집에 포함된 개별저작으로도 접근가능하도록 목록규칙 상에 전통적인 종합표제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개별저작과 관련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 240 10 ▼aWorks
- 245 14 ▼aWorks of Mark Twain / ▼cMark Twain

집합저작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tWorks

- 개별저작
-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tInnocents abroad
 -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Tom Sawyer

2) 2개 이상 저작의 집합물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모든 저작은 아니지만 특정 형식으로 된 2개 이상의 저작, 혹은 다양한 형식으로 된 2개 이상의 저작은 각각의 표제로 우선표제를 기술한다. 방법으로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록하여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식별한다. 해당되는 경우 종합표제 다음에 “Selections”를 기록한다. 편집물에 수록된 각 저작에 대해 우선 표제를 기록하는 대신 또는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할 수도 있다(RDA 6.2.2.10.3).

수록된 각각의 표제로 우선표제를 기술하는 경우 집합저작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별법인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는 경우, 종합표제가 집합물의 집합저작으로 사용되어 종합표제와 개별저작 모두로 접근가능하고, 이를 상호 링크도 연계할 수 있다. 즉, 집합물의 집합저작명을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Works. Selections”으로 집합저작을 기술하고, 수록된 개별저작의 이름/표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면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모두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wain, Mark, 1835-1910. Works. Selections”를 집합저작으로 기술하며, 수록된 각각의 개별저작에 대해서 분출저작을 기술한다.

따라서, 2개 이상 저작의 집합물인 경우 개별 표제로 기술하기보다는 별법인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어야 할 것이다.

-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240 10 ▼aWorks, ▼kSelections
 245 14 ▼aThe wit and wisdom of Mark Twain
 / ▼cMark Twain

 700 12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700 12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Tom Sawyer
- 집합저작
 100 1b ▼aTwain, Mark, ▼d1856-1950,
 ▼tSelections
- 개별저작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Tom Sawyer

4.2.2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저작의 집합물

1) 집합물의 표제가 있는 경우

편집물의 우선표제를 사용하여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RDA 6.27.1.4). 기술되는 자원이 둘 이상의 저작을 포함한 집합물이고 각 저작이 서로 다른 개인이나 가족, 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각 저작과 연관된 개인, 가족, 단체를 모두 기록한다(RDA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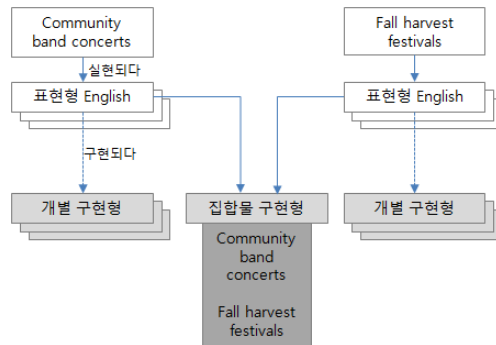
편집물이 공동 저자인 경우는 편집물의 표제만으로 저작의 우선표제를 작성한다. 개별저작에 대해서는 접근점을 기술하는 규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RDA 19.1.2에 따라서 포함된 개별저작마다 각각의 책임사항이 있는 경우는 개별저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저작과 각 저작과 관련한 개인, 가족, 단체를 각각 기술한다.

2) 집합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

편집물내의 각 저작에 대한 접근점을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방법으로 임의표제를 사용하여

편집물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편집물내의 각 저작에 대한 접근점을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이러한 접근점을 작성한다(RDA 6.27.1.4).

〈그림 14〉와 같이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편집물 내의 개별저작으로 접근점을 작성하고, 방법으로 임의표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LC-PCC는 임의표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Hart 2014, 136), 임의표제의 사용을 가능한 권고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종합표제가 없다는 것은 편집자나 수집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인정받기 어렵고, 편집자의 역할이 크지 않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

따라서, Library of Congress(2010)와 같이 집합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 임의표제를 기술하지 않고, 집합저작 없이 개별저작을 기술한다. 다만, 개별저작을 구현형에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상호 링크시킨다.

- 245 1 ▼aCommunity band concerts / ▼cSharon Polk, Fall harvest festivals / Terri Swanson.

- 700 12 ▼aPolk, Sharon.▼tCommunity band concerts
- 700 12 ▼aSwanson, Terri.▼tFall harvest festi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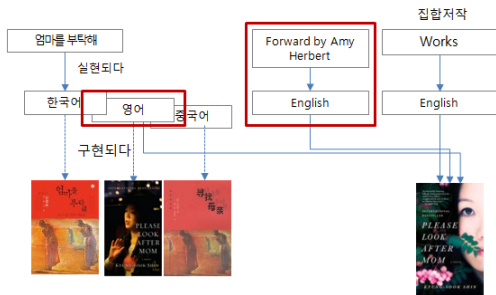
개별저작

- 100 1b ▼aPolk, Sharon.▼tCommunity band concerts
- 100 1b ▼aSwanson, Terri.▼tFall harvest festivals

4.2.3 기존 저작에 추가된 주석/해제/삽화 내용

저작이 단순히 기존 저작의 하나의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그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급한다. 기존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한다. 특정 표현형을 식별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판단될 경우,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RDA 6.27.1.6).

〈그림 15〉와 같이 “Please look after mom”은 Amy Herbert의 서문이 추가되었으며 이 서문이 본문의 내용과 구분되어 식별이 가능하므로 영어 표현형과 보유인 서문이 수록된 집합저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RDA에서 보유 집합물과 관련하여 집합저작 기술규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합저작을 기술하기 어렵다.



〈그림 15〉 집합저작이 인정되는 보유

따라서, 보유 집합물이 기존 저작의 하나의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급하지만, 보유가 본문의 내용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별도 저작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구현형은 하나로 기술하지만 표현형은 다수로 기술하는 것으로 서문 등이 명확한 표제와 저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 저작의 표현형으로 기술하고 구현형과 표현형간의 다대다 관계로 연계해야 한다.

- 245 1 ▼aPlease look after mom: ▼ba novel / ▼dKyoung-sook Shin
- 505 ▼tMom's image /dForward by Amy Herbert
- 700 12 ▼aHerbert, Amy.▼tMom's image

개별저작

- 100 1b ▼aShin, Kyoung-sook.▼tPlease look after mom
- 100 1b ▼aHerbert, Amy.▼tMom's image

4.3 KCR4 집합물 관련 목록규칙 기술방안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하 KCR4)에서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기재된 자료에서는 이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를 본표제로 기재하고 수록된 각 저작의 표제는 주기한다(KCR4 1.1.1.2 9항). 종합표제나 대표표제 없이 각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만을 열기하는 자료에서는 개별표제와 그와 관련된 책임표시를 서로 짝지워 으뜸정보원에 표시된 순서대로 기재한다. 필요에 따라 단일 저작의 4저작 이상의 합집은 첫 저작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며, 2저자나 3저자의 합집은 개개 저작의 한 저작씩만 기재하며, 4저자 이상의 합집은 열기된 것 중의 첫 저작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KCR4 1.1.1.2 10항).

RDA와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KCR4에서는 개인의 전집, 선집, 여러 저자의 편집물의 구

〈표 2〉 집합물 유형에 따른 목록규칙 기술방안 비교

유형	목록규칙	기술방안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	RDA 전통적인 종합표제 기술	개별저작으로도 기술할 필요 있음
	KCR4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로 기술 수록된 개별저작은 주기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경우 개별저작으로 기술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기술하되 집합저작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
	RDA (1) 개별저작으로 기술 (2) 별법-전통적 종합표제 Selections (3) 개별저작 + 전통적 종합표제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같이 기술하도록 함
	KCR4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로 기술 수록된 개별저작은 주기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경우 개별저작으로 기술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기술하되 집합저작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	RDA 편집물의 우선표제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같이 기술하도록 규정
	KCR4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로 기술 수록된 개별저작은 주기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로 기술하기 때문에 집합저작으로 기술하며, 수록된 개별저작은 주기하므로 개별저작으로 기술할 수 있음
	RDA (1) 개별저작으로 기술 (2) 별법-임의표제 (3) 개별저작 + 임의표제	집합저작 보다는 개별저작으로 기술
	KCR4 개별저작으로 기술	집합저작 보다는 개별저작으로 기술
보유	해당 규칙 없음	RDA, KCR4의 경우 보유 집합물에 대한 규정 필요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2003) 및 JSC for Development of RDA(2014) 참조

분 없이 종합표제나 대표표제의 유무에 따른 규칙이 제공되어 있으며, 종합표제가 기재된 자료는 종합표제를 집합저작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집합저작을 사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유 집합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칙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전집 유형에 해당하는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집, 단일형식의 전집,

선집의 경우 집합저작, 수록된 개별저작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집합물 생성의 지적 예술적 노력은 명확히 새로운 창작으로 그 자체가 저작이 되며, 이는 개별저작 뿐만 아니라 집합저작으로도 접근가능해야 한다. 집합저작은 다수의 개별 표현형을 집합물로 합친 것으로 집합물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된 것이다. 물론 집합저작의 생성시 필요한 지적 예술적 노력이 크지 않다면 집합저작을 기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

합저작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지된다면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집합저작의 형식은 “Works”, “Novels, Works”, “Works, Selections”와 같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하되 용어를 수정하여 작성한다. VIAF에서는 “Works, Selections” 등의 집합저작명을 사용하도록 RDA 별법을 적용하고 있고, LC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도 집합저작, 수록된 개별저작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로 편집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 개별저작의 접근점을 작성한다. 다만, 개별저작을 구현형에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상호 링크시킨다.

넷째, 저작의 지적 혹은 예술적 실현에 통합되지 않은 삽화, 주기와 같은 보유가 포함된 보유 집합물인 경우, 보유 자체가 별도 저작의 다른 표현형으로 간주되므로, 집합저작, 주된 표현형, 보유 표현형으로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유의 경우 보유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에 기술하도록 한다.

5. 결론

하나의 저작이 표현형으로, 표현형이 다수의 구현형으로 구현되는 자료의 FRBR 구현을 위한 서지기술은 용이하지만 하나의 구현형에 다수의 저작이나 표현형이 포함되는 집합물의 FRBR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서지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FRBR에서 집합물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고, 집합물에 대한 모델링에서도 구체적인 서지기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집합물의 FRBR 구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합물 모델링을 바탕으로 집합물의 FRBR 구현을 위한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안하였다.

집합물 모델링으로 FRBR과 LRM의 집합물 모델링을 파악하고, 집합물모델링에 따라 기존 RDA, KCR4의 데이터 기술 방안을 비교하여 집합물 기술을 위한 RDA와 KCR4 목록규칙의 기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객체지향모형으로 서지레코드를 기술하되 가능한 집합저작과 수록된 개별저작을 모두 기술하도록 한다.

둘째,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집합물인 경우 RDA에서는 “Works”, “Novels, Works”, “Works, Selections”와 같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하는 것이 별법이 아닌 기본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개별저작으로 기술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KCR4에서는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로 기술하고, 수록된 개별저작은 주기하며,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경우 개별저작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가능한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기술하되 집합저작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인 경우 RDA에서는 집합물의 표제가 있으면 해당 표제로 기술한다는 규정만 있는데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같이 기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집합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는 집합저작 보다는 개별저작으로 기술한다. KCR4에서는 집합물의 표제가 있는 경우 집합저작, 수록된 개별저작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집합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는 개별저작으로 접근점을 작성한다.

넷째, 보유 집합물은 LRM의 집합물 모델링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필요시 주된 표현형과 함께 집합저작, 보유 표현형으로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합물의 목록규칙 기술 방안은 집합물의 FRBR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집합물 구현형의 FRBR 구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ennett, R., B. F. Laboie, and E. O'Neill. 2003.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27(1): 45-59.
- Espley, J. L. and R. Pillow. 2012. "The VTLs Implementation of FRBR."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50(5-7): 369-386.
- Gatenby, J., G. Thornburg, and J. Weitz. 2015. "Collected Work Clustering in WorldCat." *Code4lib Journal*, 30 [online]. [cited 2017.10.10]. <<http://journal.code4lib.org/article/10963>>.
- Hart, A. 2014. *RDA Made Simple*. CA: Library Unlimited.
- IFLA Study Group on the FRBR. 200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online]. [cited 2015.9.10]. <<http://www.ifla.org/VII/s13/frbr>>.
- JSC for Development of RDA. 2014. *RDA: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2014 Revision. Chicago: ALA.
- Library of Congress. 2010. *Module 4: Identifying Works and Expressions* [online]. [cited 2015.9.10]. <<https://www.loc.gov/catdir/cpso/RDAtest/module4.ppt>>.
- O'Neill, E. 2002. "FRBR: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Application of the Entity-relationship Model to Humphry Clinker."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46(4): 150-159.
- O'Neill, E. and M. Žumer. 2009. *Aggregates as Manifestations O'Neill and Žumer Proposal* [online]. [cited 2015.9.10].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agg/aggregates-as-manifestations.pdf>>.
- O'Neill, E., M. Žumer, and J. Mixter. 2015. "FRBR Aggregates: Their Types and Frequency in Library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59(3): 120-129.
- Riva, P., P. Boeuf, and M. Žumer. 2017. *IFLA Library Reference Model: A Conceptual Model*

-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online]. [cited 2017.12.10].
〈<https://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lrm/ifla-lrm-august-2017.pdf>〉.
- Thornburg, G. 2014. "A Candid Look at Collected Works: Challenges of Clustering Aggregates in GLIMIR and FRBR."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33(3): 53-64.
- Tillett, B. 2009. *Definition of Aggregates as Works Tillett Proposal* [online]. [cited 2015. 9.10].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agg/aggregates-as-works.pdf>〉.
- 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09. *Differences between the Works-of-works (Tillett) and the Manifestation-of-expressions (O'Neill-Žumer) Definitions of Aggregates* [online]. [cited 2015.9.10].
〈<https://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agg/aggregates-definition-differences.pdf>〉.
- Working Group on Aggregates. 2011.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ggregates* [online]. [cited 2015.9.10].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agg/AggregatesFinalReport.pdf>〉.
- Žumer, M. and E. O'Neill. 2012. "Modeling Aggregates in FRBR."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50(5-7): 456-47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